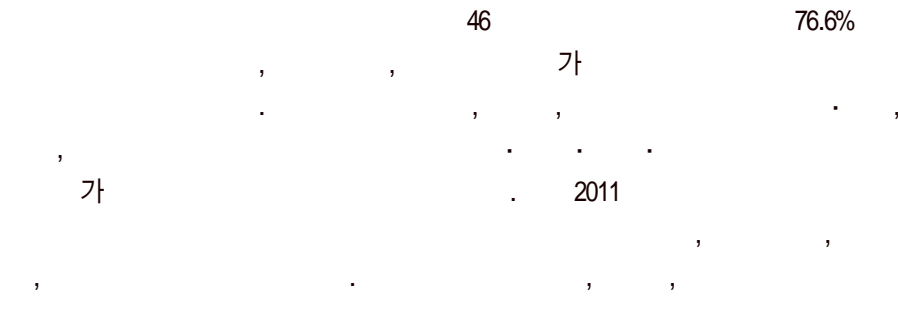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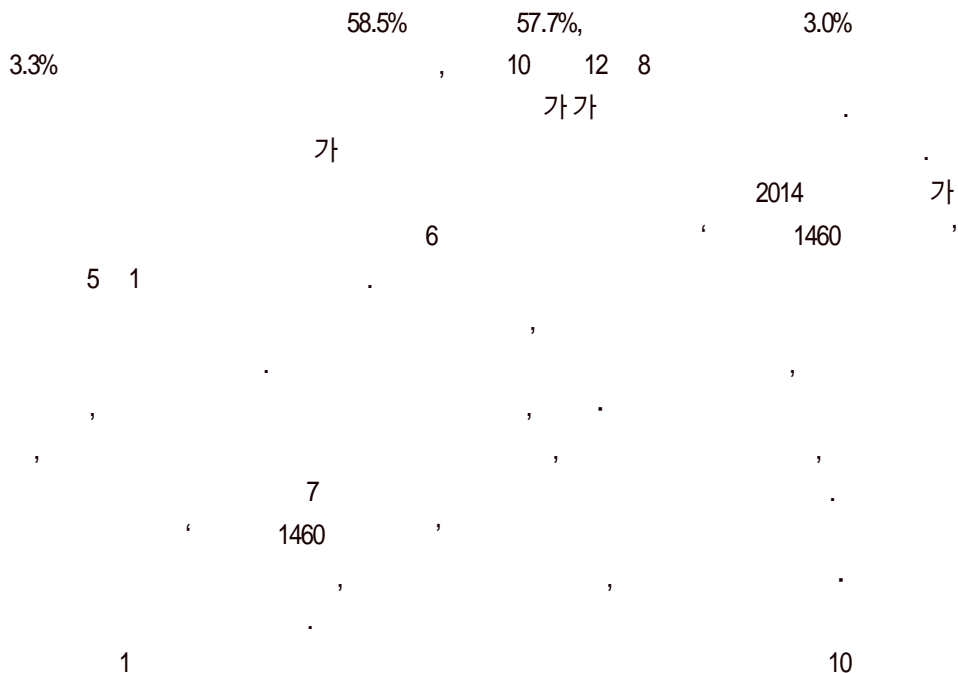


제조업 불모지에서 일자리 창출 성공신화를 보다! - 대구 수성구

지역 현황



'일자리 1460 프로젝트' 추진





수성일자리센터 1인창조기업 개소식

2011년 3월 31일 기준, 수성구 내 1인창조기업은 총 39개소로, 이중 2개소는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전년 대비 3배 증가한 수치이다.

수성구 내 1인창조기업의 업종별 분포는 제조업 9개소(22.8%), 서비스업 27개소(69.2%)로 나타났다. 이는 2010년 1인창조기업의 업종별 분포(제조업 1개소(10.0%), 서비스업 9개소(90.0%))와 비교하면, 제조업 비중이 2.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2011년 1인창조기업의 평균 인원은 5명(2010년 6명)으로, 이는 전년 대비 16.7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2010년 1인창조기업의 평균 인원이 6명(2010년 6명)인 것과 비교하면, 16.7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2010년 1인창조기업의 평균 인원이 6명(2010년 6명)인 것과 비교하면, 16.7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

2011년 1인창조기업의 평균 인원은 5명(2010년 6명)으로, 이는 전년 대비 16.7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2010년 1인창조기업의 평균 인원이 6명(2010년 6명)인 것과 비교하면, 16.7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

2011년 1인창조기업의 평균 인원은 5명(2010년 6명)으로, 이는 전년 대비 16.7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일자리 창출 노력의 결실

2011년 1인창조기업의 평균 인원은 5명(2010년 6명)으로, 이는 전년 대비 16.7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2010년 1인창조기업의 평균 인원이 6명(2010년 6명)인 것과 비교하면, 16.7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



김기영

대구 수성구청 전략기획실 지방행정주사보
gykim93@korea.kr